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 Behaviors*

조수정(Soo-Jung Cho)¹⁾

도현심(Hyun-Sim Doh)²⁾

김상원(Sangwon Kim)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roblem behaviors. The question as to whether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itudes and problem behaviors was also explored. A sample of 307 preschool children were used as subjects. Mothers rated their levels of acceptance toward their children's emotions, while teachers reported on the children's emotional abilities and behavioral problem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regression analyses. Our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controlling attitudes were associated with low levels of worry-anxiety.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children with high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low levels of worry-anxiety, hostility-aggression, and hyperactivity-inattention. While multiple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had differential impacts, the self-control factor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for all the problem behaviors. It was further found that a mother's receptive attitude was related to higher levels of self-awareness in children. Instead of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it was reveal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had greater effects upon problem behaviors than maternal

* 본 논문은 2009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³⁾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Key Words : 정서표현 수용태도(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

I. 서 론

문제행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우나, 연령에 적절한 규범적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발달상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조희숙·서수인, 1998; 황혜정·윤명희·강성빈·성낙운·황혜신, 2002).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주로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공격성, 적대성,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적응 행동을 의미하는 반면, 내면화 문제행동은 외로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두려움 등 정서적인 문제를 의미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1).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은 걸음마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에 걸쳐 발생한다(Mounton-Simien, McCain, & Kelley, 1997). 국외의 경우, 어린 시기의 문제행동이 이후 성장기에 학업문제, 또래 거부 등 다양한 문제로 확장될 뿐 아니라,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종단연구 결과들을 통해 예방적 측면에서 유아기 문제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Mathiesen & Sanson, 2000; Tomblin, Zhang, Buckwalter, & Catts, 2000; Wood, Cowan, & Baker, 2002). 이와 달리, 국내의 경우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인데, 이는 이 시기 문제행동의 심각성과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유아기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보고되고 그 비율도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어린 연령의 아동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아기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그 선행변인을 밝히는 것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입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아기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모델이자 동일시 대상이 되며, 특히 영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정서표현 및 반응은 아동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Kaban & Attanucci, 1979; MacDonald & Parke, 1984; Putallaz, 1987). 최근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에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유아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라는 용어를 개발하였다. 이 개념은 슬픔, 두려움, 행복, 기쁨, 혐오감, 호기심, 만족, 우울 등 자신이 느끼는 감정 또는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의미하며, 크게 허용·수용적 태도와 엄격·통제적 태도로 구분된다(Saarni, 1989; Saarni, Mumme, & Campos, 1998). 허용·수용적 태도는 아동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엄격·통제적 태도는 아동이 특히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감정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또래 유능성과 같은 적응행동과 내면화 문제,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 행동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김문신, 2002; 김순정, 2001; 김은경 · 도현심 · 김민정 · 박보경, 2007; 허애수, 2003; Brenda & Denham, 2001). 즉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해서 엄격 · 통제적인 태도보다 허용 ·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과 낮은 수준의 부적응 행동을 보였다. 이 외에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강지현 · 오경자, 2010; 허태희, 2008; Keiley, Lofthouse, Bates, Dodge, & Pettit, 2003; Owens & Shaw, 2003)에 근거할 때, 어머니 양육행동의 일환으로서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유아기 문제행동의 또 다른 선행변인으로 유아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유아의 정서지능이 기질이나 인지능력보다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연 · 한태숙 · 황혜정, 2004; 송진숙, 2004; Hughes, Tingle, & Sawin, 1981; Pamela, Garner, & Badiyyah, 2001; Robert & Strayer, 1996). 유아의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서를 발생시키고 정서적, 지적 성찰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1997). 따라서, 정서적으로 유능한 유아들은 다양한 상황을 통해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면서 사고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Saarni, 1997). 국외 연구들은 유아기의 정서적

어려움을 이후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 학업수행과 관련시켜 살펴봄으로써 생후 초기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유아는 이후 청소년기에 자기통제능력이 높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학업능력 또한 높게 평가되었던 반면(Mischel & Mischel, 1983),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유아는 타인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따돌림을 받게 되고(Salovey & Mayer, 1990) 이후 학업성취가 낮고 공격적이며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Grolinick, Bridge, & Connell, 1996). 국내의 경우, 몇몇 연구들은 유아의 정서지능(이병래, 1997)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정서지능이 또래 부적응과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경희 · 김경희, 1999; 김수영 · 정정희, 2003; 김은경 외, 2007). 구체적으로, 타인인식능력이 부족한 만 4-5세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실 일과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관계에서도 부적응을 보였으며(김수영 · 정정희, 2003), 자기정서 이용능력,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능력이 높은 유아의 경우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김연 외, 2004).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정서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습득 역시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유아는 부모를 통해 적절한 정서표현 발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를 경험하고,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수용되는 정서표현과 적절치 못한 정서표현 방식을 인식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Parke, 1994). 실제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이 있어(Eisenberg & Miller, 1988),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이해와

이후의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이후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부모에게서 양육 받는 아이들은 정서지능이 낮은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서 부모와 애정적인 관계를 갖고 갈등이 적었다(Gottman, Katz, & Hooven, 1997).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정서적 혼란을 거의 느끼지 않았는데,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라도 스스로를 효율적으로 진정시켰다(이지현, 2007). 반면,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정서적 갈등에 노출된 아동은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고 정서적 각성의 조절과 적응에 손상을 입었다(Davies & Cumming, 1994). 또한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유아의 안정감을 감소시키고 정서조절이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Albercht, Burleson, & Goldmith, 1994).

앞서 고찰한 연구들에 근거할 때,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 등 세 가지 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의 선행 요인이며(이지현, 2007; 이찬숙, 2008; 임지연·이정숙, 2009; 허애수, 2003; Albercht et al., 1994; Davies & Cummings, 1994; Parke, 1994), 유아의 정서지능은 문제행동의 선행 요인인 점(서향희, 2002; 황혜정, 1999; Grolinick, Bridge, & Connell, 1996; Mischel & Mischel, 1983)에 근거해볼 때,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허용적 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은 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정서지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아의 높은 정서지능은 낮은 문제행동과 관련될 것이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드문 편이나,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이 각각 정서지능과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매개효과를 짐작할 수 있는 몇몇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김은경 외, 2007; 김호정, 2002; Camras, 1985; Dix, 1991; Sally & Julie, 2002). 예를 들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긍정적으로 발달시켜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켰다(Sally & Julie, 2002). 아울러, 어머니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김호정,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허용·수용적 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유아의 정서지능의 발달을 촉진 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해 보면,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유아기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문제행동은 학령기나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다. 특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양적 문제점 외에도, 선행 연구는 유아의 다면적 정서지능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일부 하위요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자기조절능력 이외에 타인인식 능력과 같은 정서지능의 다른 하위요인도 부모와의 관계적 측면, 유아의 부적응행동 등과 관련됨을 밝혔다(김수영·정정희, 2003; Gottman, Katz, & Hooven, 1997).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외현화, 내면화 등 포괄적 측면을 다루기보다 공격성과 같이 특정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므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인식 및 조절로 구성된 정서지능, 그리고 공격성, 불안, 산만성을 포함한 문제행동 등 세 가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지능은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유아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307명(남아 : 136명, 여아 : 171명)의 만 3-5세 유아들이며,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은 만 3세가 110명(35.9%), 만 4세가 113명(36.9%), 만 5세가 84명(27.2%)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외동아가 28.2%, 첫째가 33.7%, 둘째가 29.2%, 셋째 이상이 7.8%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38.9세와 36.6세였으며,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58.2%가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39.8%가 이에 해당되었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40.5%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취업모 58.9%, 전업주부 37.5%, 기타 2.6%로 나타났으며, 취업모 중에는 회사원 및 공무원이 1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어머니에 의해서, 그리고 유아의 정서지능과 문제행동은 담임교사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Saarni(1989)의 PACES(The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번안한 후 유아기 아동의 연령에 맞도록 수정한 김은경 외(2007)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령을 고려하여 수정한 예를 들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온 후, 문을 꽁 닫고 과격한 말투로 불평하면서 울먹이고 있다면, 나는?’이라는 질문의 경우 ‘학교’ 대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대체하였다. PACES는 자녀의 가설적인 정서 표현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통제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모두 7개의 하위요인(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화(4문항)’, ‘슬픔(2문항)’, ‘두려움(4문항)’, ‘불안(3문항)’, ‘혐오감(1문항)’이라는 5개의 부정적 정서와 ‘호기심(3문항)’, ‘행복(3문항)’이라는 2개의 긍정적 정서로 이루어졌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두려움의 경우 ‘내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기다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나는...’, 화의 경우 ‘내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을 실수로 버렸을 때, 아이가 나에게 소리 지르며 화를 낸다면, 나는...’ 등이다. 각 문항은 자녀가 보이는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일상적인 반응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4점 척도로 1점은 매우 수용·허용적인 태도를, 4점은 매우 엄격·통제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통제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문항 중에서 내적 일치도를 낮추는 10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이때 얻어진 Cronbach's α 값에 의한 신뢰도는 .67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일부 문항을 삭제한 결과, 7개 하위요인 중에서 슬픔과 혐오감이 제외되었고 나머지 5개 하위요인(화, 두려움, 불안, 행복, 호기심)이 포함되었다. 이렇듯 문항 수의 감소로 정서표현 수용태도 구인의 측정이 다소 제한적인 경향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종 문항들은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2)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정서지능은 Salovey와 Mayer(1996)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하여 제작한 이병래(1997)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유아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교사용 체크리스트로, 자기인식능력(7문항), 자기조절능력(8문항), 타인인식능력(7문항), 타인조절능력(9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보면, 자기인식능력은 ‘어떤 만족스러운 일을 해냈을 때 자랑스러워하거나 기뻐한다.’, 자기조절능력은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타인인식능력은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기분상태를 잘 안다.’, 타인조절능력은 ‘다른 친구를 자기가 하고 있는 놀이에 참여시킬 줄 안다.’ 등이 포함된다. 본 척도는 4점 Likert식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값에 의한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면, 전체 문항의 경우 .92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자기인식능력은 .78, 자기조절능력은 .88, 타인인식능력은 .89, 타인조절능력은 .82였다.

3)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ehar와 Stringfield(1974)의 PBQ(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번안한 김지윤(2006)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PBQ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문제행동 척도인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Rutter, 1967)를 학령전기 아동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

은 기관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Behar & Stringfield, 1974). 이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적대-공격성(11문항), 걱정-불안(9문항), 과잉행동-산만(10문항)이 포함된다.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적대-공격성 요인은 ‘자기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다른 아이들과 싸움을 자주 한다.’ 등의 문항들을, 걱정-불안 요인은 ‘걱정이 많다.’ ‘새로운 물건이나 환경에 대해 두려워한다.’ 등의 문항들을, 그리고 과잉행동-산만 요인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가만히 있지 못한다.’, ‘집중을 잘 하지 못하거나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 등의 문항들을 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원 척도는 ‘그렇지 않다(1점)’, ‘때때로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의 3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분명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척도의 Cronbach's α 값에 의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전체 문항의 경우에 .93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적대-공격성은 .91, 걱정-불안은 .74, 과잉 행동-산만은 .80로 적절하거나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8년 12월 10일-2009년 1월 7일에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3곳의 유치원과 4곳의 어린이집 시설장의 동의하에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총 20개 학급의 담임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조사방법을 설명한

후, 어머니용 질문지는 대상 유아들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였으며, 교사용은 교사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가정으로 배부된 443부 가운데 332부가 회수되었으며(74.9%의 회수율), 무성의하게 응답된 어머니용 23부와 회수되지 않은 교사용 2부를 제외하고 총 307부가 본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얻기 위하여 연구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교사평정으로 얻어진 유아의 정서지능과 문제행동 점수는 평가자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Z점수로 변환하였다. 예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에서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각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예측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 등 각 연구변인에서의 성차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1>).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능력($t = -4.15, p < .001$)과 문제행동 중 적대-공격성(t

<표 1>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 = 307)

변인	1	2	3	4	5	6	7	8
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							
유아의 정서지능								
2. 자기인식능력	-.13*	-						
3. 자기조절능력	.03	.04	-					
4. 타인인식능력	-.04	.54***	.40***	-				
5. 타인조절능력	-.01	.59***	.43***	.74***	-			
유아의 문제행동								
6. 적대-공격성	.01	-.22***	-.67***	-.47***	-.46***	-		
7. 걱정-불안	-.12*	-.28***	-.35***	-.34***	-.42***	.54***	-	
8. 과잉행동-산만	-.05	-.24***	-.63***	-.48***	-.49***	.82***	.66***	-
평균	2.97	3.05	2.76	2.85	2.97	1.47	1.65	1.67
표준편차	.35	.51	.48	.55	.46	.45	.43	.47

* $p < .05$. *** $p < .001$.

= 4.67, $p < .001$)에서만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보였으며, 남아는 여아보다 높은 적대-공격적 문제행동을 보였다.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능력($r = -.13, p < .05$)과 문제행동 중 걱정-불안($r = -.12, p < .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정서표현에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자기인식능력이 낮고, 걱정-불안 수준도 낮았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문제행동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하여($r = -.22 \sim -.67, p < .001$), 높은 수준

의 자기인식능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및 타인조절능력을 가진 유아는 낮은 수준의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그리고 과잉행동-산만을 나타내었다.

2.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 요인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문제행동 중 걱정-불안 요인에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

<표 2>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회귀분석(β)

(N = 307)

예측변인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01	-.12*	-.05
R^2	.07	.02	.01
F	11.53	4.12*	.62
(df)	(1,305)	(1,305)	(1,305)

* $p < .05$.

으며($\beta = -.12, p < .05$), 그 설명력은 2%이었다 (<표 2>). 즉,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통제적일수록 유아의 걱정-불안 수준은 낮았다.

3. 유아의 정서지능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유아의 정서지능 요인들이 세 가지 문제행동 요인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첫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beta = -.60, p < .001$)과 타인인식능력($\beta = -.17, p < .01$)은 적대-공격적 행동과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즉, 유아는 자기조절능력과 타인인식능력이 높을수록 적대-공격성을 덜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서지능이 적대-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51%이었다. 둘째, 유아의 자기인식능력($\beta = -.14, p < .05$), 자기조절능력($\beta = -.26, p < .001$), 타인조절능력($\beta = -.22, p < .01$)은 걱정-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여, 자기조절능력, 자기인식능력, 타인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유아는 걱정-불안 행동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은 걱정-불안의 변량 중 22%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과잉행동-산만에 대해 자기조절능력($\beta = -.52, p < .001$)과 타인인식능력($\beta = -.14, p$

$< .05$)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쳐, 유아는 자기조절능력과 타인인식능력이 높을수록 과잉행동-산만을 덜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이 과잉행동-산만을 설명하는 정도는 47%에 해당되었다.

4.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자기인식능력 요인에만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beta = -.13, p < .05$)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유아의 자기인식능력은 낮았다(<표 4>).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자기인식능력의 변량 중 2%를 설명하였다.

5.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 탐색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은 Baron과 Kenny(1986)의 기본 가정에서와 같이

<표 3>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정서지능의 회귀분석(β)

($N = 307$)

예측변인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
유아의 정서지능			
자기인식능력	-.11	-.14*	-.07
자기조절능력	-.60***	-.26***	-.52***
타인인식능력	-.17**	-.01	-.14*
타인조절능력	-.01	-.22**	-.11
R^2	.51	.22	.47
F	78.85***	21.14***	68.15***
(df)	(4,302)	(4,302)	(4,302)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회귀분석(β) (N = 307)

예측변인	자기인식능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타인조절능력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13*	.03	-.04	-.01
R^2	.02	.06	-.01	.01
F	4.95*	.12	.47	1.04
(df)	(1,305)	(1,305)	(1,305)	(1,305)

* $p < .05$.

예측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을 보일 경우 세 가지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표 5>). 본 연구변인들 가운데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자기인식능력 및 걱정-불안 등은 서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이어서 실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변인인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매개변인인 유아의 자기인식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beta = -.13, p < .05$),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유아는 높은 자기인식능력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인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종속변인인 유아의 걱정-불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beta = -.12, p < .05$),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통제적일수록 유아는 낮은 걱정-불안 수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

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beta = -.15, p < .01$)와 자기인식능력($\beta = -.30, p < .001$) 모두 유아의 걱정-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영향력은 두 번째 모델의 경우에 비해 다소 높아짐으로써, 유아의 정서지능은 완전 혹은 부분 매개 역할을 나타내지 않았다.

추가 분석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표 6>). 유아의 적대-공격성에는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순으로($R^2 = .51$), 걱정-불안에는 자기조절능력, 타인조절능력, 자기인식능력,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순으로($R^2 = .24$), 마지막으로 과잉행동-산만에는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순으로($R^2 = .48$)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5>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걱정-불안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기인식능력의 매개적 역할(β) (N = 307)

	1단계	2단계	3단계
	자기인식능력	걱정-불안	걱정-불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13*	-.12*	-.05***
유아의 자기인식능력			-.30***
R^2	.02	.02	.10
F	4.95*	4.12*	17.76***
(df)	(1,305)	(1,305)	(2,304)

* $p < .05$. *** $p < .001$.

<표 6>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회귀분석(β) (N = 307)

예측변인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01	-.13**	-.05
유아의 정서지능			
자기인식능력	-.10	-.17*	-.08
자기조절능력	-.60***	-.24***	-.52***
타인인식능력	-.18**	-.01	-.14*
타인조절능력	-.01	-.21*	-.11
R^2	.51	.24	.48
F	62.87***	18.62***	54.92***
(df)	(5,301)	(5,301)	(5,301)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기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자신이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교사는 유아가 걱정과 불안을 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태도에 대해 통제적일수록 남아가 낮은 대인적응성을 보였던 연구결과(김은경 외, 200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선행 국외 연구결과들과는 대조적이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슬픔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정서조절이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반면, 이러한 정서 표현

에 대한 격려는 적응력 있고 유능한 사회적 행동유형을 발달시켰다(Albrecht et al., 1994; Eisenberg, Fabes, Carlo, & Karbon, 1992; Hyson, 1994; Roberts et al., 1987). 이 외에도,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적대-공격성과 과잉행동-산만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통제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외현적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들(김순정, 2001; Brenda et al., 2001)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가 몇몇 국내 연구결과들(김은경 외, 2007; 한영민, 2005)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외 연구결과들과 불일치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정서표현 수용태도’ 척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 척도는 서구의 정서적 문화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으로 내용상 우리의 정서와 다소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문화에 따라 정서를 표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며, 같은 상황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등 문화적 차이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 척도는 각 문화에 대한 응답이 문장 형식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 응답자가 반

응을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이해력을 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이 초래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이러한 척도 상의 문제는 척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원래의 20개의 문항수가 10개로 감소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의 다소 낮은 편의 신뢰도가 산출되었던 점,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또 다른 연구변인인 정서지능과도 미약한 관계를 보인 점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척도를 개발·이용하여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아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걱정,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이용하고 감정 조절 및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등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김연 외, 2004; 염미애·문혁준, 2007)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외현화 문제행동인 적대-공격성과 과잉행동-산만의 경우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이 영향을 미쳤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인 걱정-불안 요인에는 자기조절능력, 타인조절능력, 자기인식능력이 영향을 미쳤다. 즉, 유아가 자기조절능력과 타인을 인식하는 능력이 높을 경우,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주의산만하거나 과잉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한편, 유아가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타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경우, 걱정과 불

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다. 이는 유아의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공격행동이 타인 정서를 잘 인식할 때 덜 나타나며, 자기정서를 이용하는 능력이 뛰어날 때 위축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송진숙, 2004)와 일치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능력은 모든 종류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것은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유아의 정서·행동문제를 가장 높게 예측하였던 연구결과(황혜정, 1999)나 정서지능 중에서 특히 정서조절능력과 정서활용능력은 유아의 부적응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였던 연구결과(하승희, 2000)와 일치한다. 이는 또한 자발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충동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들(송혜영, 2007; Caspi, Lynam, Moffitt, & Silva, 1993)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유아기 정서지능의 중요한 측면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유아는 정서조절을 잘 할수록 대응적응성 및 인기도/지도력이 높았고(김은경 외, 2007),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능력이 높았으며(Eisenberg & Mussen, 1989), 사회적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다(Caspi et al., 1993).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간에는 미약하나마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어,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통제적일 때 유아가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엄격하고 통제적일 때에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잘 드러낼 수 없으므로 정서를 표출해 내는 정도를 줄이게 된다는 연구결과들(김문신, 2003;

Baumrind, 1968; Garber, Braafladt, & Weiss, 1995)과 유사하다. 즉,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과 일맥상통하는 통제적 수용태도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있어서 유아의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 표현 방식을 경시하면서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Goleman, 1995),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해독해 내는 데 어려움을 갖기 쉬울 것이다. 반면,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일 경우에는 유아는 정서를 더욱 자주 표현하고자 하며 나아가 보다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가질 수 있다(Goleman, 1995; Shields & Cicchetti, 1998). 한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및 타인조절능력과의 하위요인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정서표현은 유아가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Denham, Zoller, & Couchoud, 1994)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미약한 관계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척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태도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관련문헌에 따르면 부모는 유아의 정서·사회성 발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입증되고 있다(Cole, 1986; Dunn & Brown, 1994; Zeman & Shipman, 1996).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관련된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정서지능의 매개적 역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혹은 문제행동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나 이를 포함한

정서지능이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보고한 몇몇 연구결과들(김은경 외, 2007; Sally & Julie, 2002)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약했던 점에 기인하기 쉽다. 비록 유의미한 매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이 각각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 변인 가운데 정서지능은 세 가지 문제행동 요인 모두에 대해 정서표현 수용태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걱정-불안, 적대-공격성, 과잉행동-산만 등의 문제행동은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같은 양육행동 보다는 유아 자신의 정서적 특성에 의해 더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유아의 정서발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환기시킨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걱정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유아의 정서지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이 갖는 상대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 등 문제행동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서지능 요인은 자기조절능력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 치료하는 중재적 접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부모-자녀관계에 중점을 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정서표현을 격려, 촉진하고 아동이 표현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 모두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유아의 또래관계에 중점을 두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유아가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함과 동시에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정서지능 및 문제행동에 대해 다소의 영향력을 미치긴 하였으나, 그 정도와 방향성은 선행 국외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되었듯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측정하는 도구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척도의 경우에 문화적 차이, 응답의 어려움과 같은 잠재적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잘 반영하면서 응답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면접법, 관찰법 등 다양한 측정법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라는 구인을 평가하는 데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측정법과 관련하여 보고자 차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직접 보고한 정서표현 수용태도 점수와 교사보고에 의한 유아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미약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의 일부는 서로 다른 보고자를 사용한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보고자에 의해 얻어진 점수들 간에는 상이한 보고자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의 두 가지 변인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선행 요인임을 규명하는 데 그쳤다. 후속 연구에서는 또 다른 예측변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인들이 어떻게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 그 발달경로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모-자녀관계와 정서발달이 강조되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시에 살펴본 선행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모-자녀관계 중 자녀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관련된 아동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동시에 정서발달 측면에서 유아의 정서적 능력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아의 정서지능의 여러 하위요인들 가운데 자기조절능력을 비롯한 다른 하위요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 개선과 유아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목표로 하는 중재적 노력에서 정서를 둘러싼 관계 중심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지현·오경자(2010).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 발달경로에 미치는 기질의 효과: 잠재성장 혼합모형 분석을 적용한 단기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9(3), 875-894.
- 김경희·김경희(1999). 유아 정서지능의 구인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1), 25-38.
- 김문신·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6(1), 3-13.
- 김수영·정정희(2003). 유아의 또래수용도, 정서지능, 적응행동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26, 239-257.
- 김순정(2001). 어머니의 정서 표현 수용 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한태숙·황혜정(2004). 유아의 정서지능·인지능력·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성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277-298.
- 김은경·도현심·김민정·박보경(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지윤(2006). 유아의 기질 및 부부갈등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호정(200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향희(2002). DAP 유아교사 신념이 유아의 감정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진숙(2004).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기질,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및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35, 143-161.
- 송혜영(2007). 유아의 정서적·행동적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염미애·문혁준(2007). 유아의 정서지능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 학가정학회지**, 45(4), 61-75.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현(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정서지능 및 아동의 정서지능간의 관련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찬숙(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연·이정숙(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4(2), 55-77.
- 조희숙·서수인(1998).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 지각과 어머니 지각간의 관계 연구. **부산유아교육학회지**, 8(1), 165-181.
- 하승희(2000).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민(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애수(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의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태희(2008).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1999).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과 정서 행동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3(1), 67-84.
- 황혜정·윤명희·강성빈·성낙운·황혜신(2002). 유아용 문제행동 진단검사 개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지**, 22(1), 72-88.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1). Behavioral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1-82.
- Albercht, T. L., Burlison, B. R., & Goldsmith, D. J. (1994). Supportive communication. In M. L. Knapp & G. R. Miller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2nd ed. (pp. 419-449). Thousand Oaks, CA : Sag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y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rind, D. (1968). *Manual for the preschool behavior Q sor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 Behar, L., & Stringfield, S. (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01-610.
- Brenda, L., Carlo, E., & Denham, B. (2001). The relation among Mother's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 and prosocial behavior. *Human Relations*, 13, 38-9.
- Camras, L. A. (1985). Socialization of affect commu-

- cation.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 (pp. 141-160). New York : Plenum Press.
- Caspi, A., Lynam, D., Moffitt, T. E., & Silva, P. A. (1993). Unraveling girls' delinquency : Biological, dispositional, and contextual contributions to adolescent mis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30.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321.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and resolution*. New York : Guilford Press.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1994). Preschoolers' causal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its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ix, T. (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Dunn, J., & Brown, J.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emotions, and child'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55*, 57-73.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Miller, P.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 Garber, J., Braafladt, N., & Weiss, B. (1995). Affect regulation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93-115.
- Goleman, D. (1995). *Emotion intelligence*, New York : Bantam Books.
- Grolinick, W. S., Bridges, L. J., & Connell, J. P. (1996). Emotion regulation in two-year-olds : Strategies and emotional expression in four contexts. *Child Development, 67*, 928-941.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illsdale, NJ : Erlbaum.
- Hughes, R. Jr., Tingle, B. A., & Sawin, D. 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22-128.
- Hyson, M. C. (1994). *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Building on emotion-centered curriculum*. New York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Kaban, B. T., White, B. L., & Attanucci, J. (1979). *Origins of human competence*, Englewood Cliffs, NJ : Lexington Books.
- Keiley, M. K., Lofthouse, N., Bates, J. E., Dodge, K. A., & Pettit, G. S. (2003). Differential risks of covarying and pure components in mother and teacher report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across ages 5 to 14.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67-283.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Mathiesen, K. S., & Sanson, A. (2000). Dimensions of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from 18 to 30 month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5-31.
- Mischel, H. N., & Mischel, W. (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Mounton-Simien, P., McCain, A. P., & Kelley, M. L. (1997). The development of the toddler behavior screening inventor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59-64.
- Owens, E. B., & Shaw, D. S. (2003). Predicting growth curves of externalizing behavior across the pre-school yea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575-590.
- Pamela, W. G., & Badiyyah, W.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1*, 159-177.
- Parke, R. D. (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problems :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57-169.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449-470.
- Saarni, C. (198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 (PACES)*. Unpublished Manuscript, Sonoma State University.
- Saarni, C. (1997). *Emotional competence and self-regulation in childhood*.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pp. 35-66). New York : Basic Books.
- Saarni, C., Mumme, D. L., & Campos, J. J. (1998). Emotional development :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Vol. 3* (5th ed., pp. 237-309). New York : Wiley.
- Sally, R. R., & Julie, A. H.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657-667.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 Mayer, J. D.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D.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al intelligence :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4). New York : Basic Books.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Tombli, J. B., Zhang, X., Buckwalter, P., & Catts, H. (2000). The association of reading disability, behavioral disorders, and language impairment among second-grad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473-482.
- Wood, J. J., Cowan, P. A., & Baker B. L. (2002). Behavior problems and peer rejection in preschool boys and girl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3*, 72-88.
- Ze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 842-849.

2010년 9월 1일 투고, 2010년 11월 4일 수정
2010년 11월 5일 채택